



‘온전함을 사모하는’ 글로벌 특별새벽부흥예배

SAGA와 함께하는 제19차 봄 특별새벽부흥예배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Let Christ Be King

뉴스레터 News Letter 245호 주후 2021년 4월 14일(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두 어느 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성숙한 제자로 주 앞에 설 수
있을지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쓰시는 주님
그리고 빚어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의 기대 중에 하나
내가 주님 앞에 성숙한 제자로 온전한 제자로 설 수 있을까,

주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에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숙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런 온전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게 된 진리를 붙잡고 매일 매일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비합리적인 끔찍함과
비극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경하고 잠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경하고 순간적 고난은 우리에게 모든 비교를 넘어서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영원히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하고 특별한 영광의 무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보이는 세상과 상황이 아닌, 주님만 바라볼 때,

특별하고 특별한 영광의 무게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4월13일 특새 설교 말씀 중에서.

‘온전함을 사모합니다’
Desiring the Teleios Life

TODAY'S PRAYER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 1/ 특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가장 깊고 높은 선을 위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옵소서.
- 2/ 글로벌 특새를 통해 SaGA와 글로벌 참여교회들이 팬데믹의 상황에 주눅 들지 않고, 기도의 활주로를 달려 광활한 은혜의 창고를 향하여 힘차게 이룩하게 하옵소서.
- 3/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하여 주시고 무한한 강렬함으로 복 주실 것이라 약속하여 주옵소서.
- 4/ 세워주신 강사님(마이클 리브스 목사, 지성호 의원)과 담임목사님에게 압도하는 성령의 권능과 은사를 부어주셔서 온 성도가 은혜 위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영원한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고후 4:16~18)

존 파이프 목사

타락한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의 걸 사람은 날마다 낡아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매일 시들어 가고 매일 고갈되어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오히려 매일 새로워진다”고 전합니다. 바울이 이 같이 말한 이유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장차 올 영광을 준비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 역시 인생 절반을 옥살이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장차 보이실 영광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 헤롯왕의 간음이 잘못되었다고 직언한 결과 옥에 갇혀 목이 베어졌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는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죽음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 모든 일은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케 하시는 왕의 치유

(마 9:35~10:4)

이동원 목사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제자인 우리들은 서로 상처를 입는 존재지만, 주변의 상처를 치유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1) 상처 입은 자들을 주목하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보다 더 많은 상처로 고통 받는 이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항상 그들에게 가 있었기에 제자인 우리도 이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2) 상처 입은 자들과의 공감의 가슴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고통 받는 무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붙잡히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붙잡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를 통해 공휼의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3) 상처 입은 자들을 제자 삼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사도는 보냄 받은 사람으로 현대어로 선교사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선교사로서 치유하고 온전케 되어 성숙, 즉 온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강사소개



지성호 의원은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열차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해 왼손과 왼쪽 다리가 절단되었습니다. 장애를 안고 꽃제비로 힘겹게 생활하다가 2006년에 목발을 짚은 채로 두만강 → 중국 → 라오스 → 태국 약 6,000km를 이동한 뒤에 대한민국에 정착했습니다. 2009년부터 북한사랑의선교부에 등록하여 통일한국의 지도자를 꿈꾸며 북한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다가, 제21대 국회의원이 되어 북한에서 고통 받는 이들의 인권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북한사랑의선교부 소개



북한사랑의선교부는

-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미 함께 하는 공동체**’로서 남과 북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 ‘**교회 안의 교회**’로서 아기부터 청·장년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로 구성된 신앙 공동체입니다.
-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북한’ 탈북민과 ‘남한’ 소명자들이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통일’을 앞서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역 소개

- 통일세미나 **SENK**(Sarang Education for North Korea mission)를 해마다 진행하여 북한과 통일, 북한 선교에 대한 성경적 시각을 갖추어 실제적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선교 공동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 탈북자 대안학교인 **반석학교**는 복사선 산하기관이자 통일부 소속으로 대학진학 학습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키우는 ‘통일을 위한 글로벌 사관학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아리조나 그랜드 캐니언 대학(Grand Canyon University)과 연계한 유학의 길이 열려 글로벌 리더 양성의 토대가 만들어졌습니다.

기도 제목

- 사랑의교회가 ‘**피 흘림 없는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루는 거룩한 ‘**기도의 침병 부대**’가 되게 하시고, 영적 야성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는 사명 공동체로 역동하게 하옵소서.
- 북한사랑의선교부가 ‘복음적 평화통일을 이미 함께 하는 공동체’로 준비되어, 남북의 성도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북한 선교를 마무리하는 비밀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특새찬양



■ 가이드북 특새찬양3 - 영과 진리로(This is the time)

테리 맥칼몬(Terry MacAlmon)은 1955년에 태어나 기독교 가수, 작곡가, 음악가, 녹음 아티스트, 예배 지도자 및 작가로서 특히 '나는 찬양하리라(I sing praises to Your Name)'와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Holy are you Lord)'(특새 찬양 4번)의 작곡가입니다.



'영과 진리로(This is the Time)'라는 찬양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요 4:23)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을 찬양으로 작곡한 것인데 가이드 북에는 후렴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이 곡의 후렴 부분은 **이사야 6장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 모습과 비슷합니다.** 스랍들이 '거룩,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경배하되 두 개의 날개로 날면서, 두 개의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개의 날개로 얼굴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쉼기나의 장엄한 영광에 놀라고 또 놀라면서 경배하는 쉼기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찬양이 담아내는 모습처럼 우리의 찬양 위에 **쉼기나의 장엄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사 간증



미안마, 심우·임인희 선교사 - 은상가은(恩上加恩)!

특새는 은혜의 종착입니다.

2003년 오정현 담임 목사님께서 순장반에 처음 오셔서 '우리 새벽기도 한번 해 봅시다!' 하신 그 해 가을, 일주일 작정으로 시작했던 새벽기도회가 2주일을 거쳐 **40일로** 내달렸고, 본당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미친 듯이 오밤중을 내달렸었던 첫 특새에서 저는 생명 되신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타성에 젖어있던 모태신앙이기에 기도할 때 소리내는 것도, 찬양할 때 손드는 것도 어색했지만 **성령님께서 어루만지자 영적 기백으로 야성이 생겼고, 그곳에 생명력이 돌아왔습니다.**

특새 기간 한 집사님께서 '저, 오늘 죽으려 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어차피 갈 세상 마지막 새벽기도에 한번 나가보자 해서 왔는데 오정현 목사님 말씀 들으며 다시 살아보자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저를 붙잡고 **서러움과 기쁨의 대성통곡을 쏟아내었습니다.** 특새는 그야말로 **은혜의 현장입니다.**

당시 불렀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의 가사대로 저희를 미안마 버마족의 영혼들을 섬기는 선교사로 삼으신 것 또한 은혜입니다. 최근 코로나 19 사태와 2월 1일 발생한 쿠데타로 미안마 국민들의 영혼들이 피해져 가는데, 사랑의교회 특새(미안마는 특별심야부흥회)는 또 다른 **영적 생명의 충전소**입니다. 선교지에서 드리는 특새는 해마다 강력한 자극과 도전을 줍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가야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비록 미안마가 코로나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실종하고, 시민들의 저항은 날로 커져가 밤낮 총성이 울리는 시가전으로 변해버렸지만 이번 제 19차 글로벌 특새도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제시하리라 기대합니다. 특새는 **영적 생명의 충전소요, 갈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특새 기간 불쌍한 미안마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참여교회 은혜게시판



윤현숙 권사 / 목포사랑의교회



매일 새벽 찬양과 말씀으로 은혜의 강물에 충만히 젖어두고 있습니다. 이곳 목포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왕이시며, 나의 소망이심**을 고백하며 예배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유영진 안수집사 / 예안교회

존 파이어 목사님 말씀은 잠자고 있는 영혼을 깨우는 말씀입니다. 작은 파도에도 흔들리고, 한난에 상처가 깊어 원망하는 저에게 오는 말씀은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영광 중에 나태니엘 주님을 보게 하였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욱 기도하며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백기복 집사
대구동신교회

저는 우주 대통령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시작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최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가 임차로 다급하였는데, 기도로 준비하니 가장 적절한 장소에 상가를 임차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크리스도 포비아'라고 기독교에 대해 혐오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면 새로운 사업과 계획들도 기도로 시작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범일 장로 / 예안교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기도의 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우리 교회와 지역을 넘어 **글로벌 특새를 통해 전세계 교회 지도자 및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국내외 영적 리더들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도전과 힘을 주는 글로벌 특새가 은혜의 물결로 넘실거리길 기도합니다.

송은숙 권사 / 예안교회



전북 익산에서 함께 올려드리는 찬양의 은혜는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조엘 비키 목사님 말씀처럼 저에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부자인 기도 부자로 살아가길 다짐합니다.



영국/유니온

글로벌 기도제목



1. 복음을 들고 전세계로 향하였던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사 이제는 선교지가 된 영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 유니온신학교를 축복하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여 **교회를 섬기고 세계를 축복하는 목회자들이 양성**되게 하옵소서.
3. 사랑의교회와 파트너십을 맺은 영국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면면히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입니다.

2. 감사소개

*오늘: 마이클 리브스 (영국 유니온신학교 총장)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기도의 특권' (롬 8:14-15)

지성호 (21대 국회의원)

'내가 사는 이유' (마 25:40)

*내일: 짐 심발라 (뉴욕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행 12:5-7)

김예랑 (기도공동체 '화이팅게일' 섬김이, KBS 21기 공채 탤런트)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살전 5:16-18)

3. 은혜로운 카풀 이용안내

꼭 필요한 노선의 특새 버스만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교구별로 지혜와 사랑을 모아 카풀로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주차 안내

교회주차장,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월요일-금요일 2시 30분-7시까지, 7시 출차(이후 유료), 더바인 웨딩 & GS파크 24: 토요일만 가능, 8시 30분 출차(이후 유료). 성숙한 주차 문화는 교회의 자랑입니다.

5. 은혜 게시판 활용

쏟아지는 은혜를 게시판에 작성해주시는 201-400번 성도님들께는 'Teleios 그림책'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게시판을 작성하시는 성도님들을 선정하여 선정하여 온전함을 더욱 사모하게 하는 'Teleios 키링'을 드립니다.

* 한국교회/세계교회 성도님께서는 sarang on youtube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있는 <연합 특새 홈페이지> 링크 https://together_revival.sarang.org/index.asp 를 클릭하셔서 은혜 게시판 (reflection blog)에 받은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시 성함과 교회 이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쏟아지는 주의 은혜, 쏟지 말고 담아두자

"나에게 글로벌 특새란 _____이다.
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빈칸을 채워서 <은혜 나눔>과 함께 올려주시면, 은혜롭고 기발한 글을 선정하여 'Teleios 키링'을 드립니다. 최우수자 5분에게 <특새 Limited Edition '은혜의 폭포' 퍼즐>을 선물로 드립니다.



영적 집현전 saga독서

사가독서(賜暇讀書):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사들 가운데 재행(才行)이 뛰어난 학자들에게 휴가를 주어 독서에 전념하도록 한 제도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saga독서 도서추천 #1

- 제목: 지금 누리는 하나님 나라
- 저자: 폴 트립 (Paul Tripp)
- 카테고리: 일터선교
- 추천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마6:33) 이것은 모든 성도들을 향한 예수님의 절대적인 부르심이자 사명이다. 이 책은 당신만의 세계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며 살도록 당신을 도울 것이다.



김진아 / 순간의 은혜

오늘 설교를 들으며 은혜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순간순간 새롭게 부여주시는 은혜를 더욱 간구해야겠다"는 절실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여러 형태의 고난이 닥쳐오겠지만 무의미한 고난이란 없으며 중하고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매달리며 이겨내리라 다짐해 보았습니다.

최아름 / Your pain is doing something for you!

코로나 상황 속에서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무기력함과 우울감이 마음에 가득 찬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오늘 존 파이프 목사님 설교가 여러모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평생 엄청난 고난을 받은 자이지만, 그가 그의 삶의 고난을 잠시 잠깐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저 역시 보이는 것들에 얽히지 않고,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낙심하지 않고 기쁨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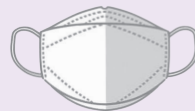
최슬아(초등부)

보이는 것은 잠깐 뿐이지만 보이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게으르고 보이는 것만 신경 썼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보이는 것만 집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더 보아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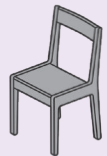
한이진 / 신앙의 야성을 키우는 특새

고 3대 특새를 전담한 아들이 이제는 기숙사에서도 룸메이트들과 함께 특새에 참석합니다. 그런 오빠를 보았던 딸은 자기도 이번 특새에 전담 하겠다며 깨우지 않아도 3시에 스스로 벌떡 일어나 따라 나섭니다. 특새를 통해 신앙의 야성을 키워 견고한 믿음을 가지므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녀들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특새를 위한 예매 에티켓



예매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자리는 맡아두지
않습니다.



교구별로 카풀을
이용합니다.



온·생·예 중에는
멀티 태스킹을 하지 않습니다.

특새 이모리온



열도릴 온전할 온
'왕이신 그리스도' 앞에
항상 열도릴 때
온전함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날

우리가 잠깐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으로 이루어 질 것입니다.